

■ 2025년도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포함)사업 심의 총평

1. 문학/시각예술 분야

-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포함) 사업 문학/시각예술 분야
- 회의일시 : 2024년12월 5일(목) 10: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구모룡, 김장언, 백다흠, 변종필, 엄창석, 임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문화예술계 진입을 돕고 문화예술단체의 동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전히 문화예술 고용 상황이 열악하고 관련 단체의 운영 또한 어려운 작금의 현실이기에, 문화예술 생태계의 인력 고용과 창제작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금 지원은 국가의 문화예술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단체는 청년예술인을 신규 채용하여 창작·유통·향유 활동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급 인력은 현장의 실무를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심의에서는 신청 단체의 인력운영 계획(20점), 인적 구성의 수준(10점), 단체의 예술 활동의 성과(20점)와 계획(20점) 등의 정성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업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되 문학계과 시각예술계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도 충분히 반영하여 심의위원들은 단체가 제출한 신청계획서를 사전 검토한 후 대면토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거쳐 정성지표별로 A~E 등급으로 나누어 절대평가 점수를 매겼고, 여기에 고용환경 개선노력에 대한 정량지표 평가점수(30점)를 합한 신청단체별 최종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심사위원 6인의 평균 점수에 근거하여 과락 75점 이하인 단체를 제외한 단체들의 순위를 정하여, 본 사업에 주어진 예산 규모에 따라 적격 단체별로 적정한 채용 인력 수를 최종적으로 합의 조정하였습니다. 연수단원의 경우, 장애인력 1명 채용시 비장애인 1명 채용의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인력 지원이라는 본 사업의 핵심적 특성을 감안하여, 채용 인력의 경력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 전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조직적 체계를 구축한 신청단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단순한 업무보조 자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래 전문가로서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예술인의 의지와 실천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직무 교육의 방법과 환경이 각 신청단체 고유의 창제작 활동과 조화롭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본 사업이 청년예술인에게는 문화예술계 진입의 알찬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문화예술단체에게는 인력 고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신규 신청단체의 경우, 단체의 기존 예술활동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으니 신청 인력 육성을 위한 합리적 구상과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활동계획이 좀 더 비중 있게 제시하여 이를 주요 요소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반면 이미 사업 수혜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재신청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였던 두 주체의 공공적 의식과 책무, 그리고 그것의 성실한 실천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거 데이터를 선정 여부 판단의 중요한 한 요소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획한 직무교육의 전 과정의 실제 수행, 그 결과의 유의미한 효과 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단체의 자체평가를 비롯하여 현장 모니터링, 청년인력 직접면담 등의 성과관리 평가가 평가지표로 추가 도입되길 바랍니다.

사회의 변화에 비추어 반성하거나 환류 개선하지 못하는 제도는 그 자체가 의도한 적실함을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및 심의의 구조는 물론이고 사업 수행에 뒤따르는 현장에서의 유무형의 효과에 관한 문화예술계 각 주체들 간의 면밀한 논의가 꾸준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 사업의 사회문화적 의의와 가치에 동감하여 공모에 참여한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단체의 관심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심의위원 일동